



중 리오프닝 3월이 고비

그림1. 70년래 최대 감소를 기록한 1월 홍콩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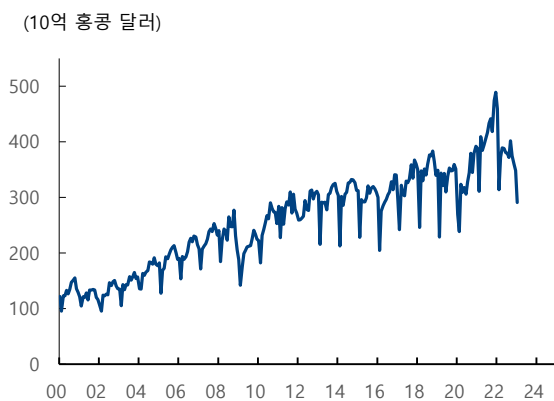


그림2. 홍콩 총수출 및 홍콩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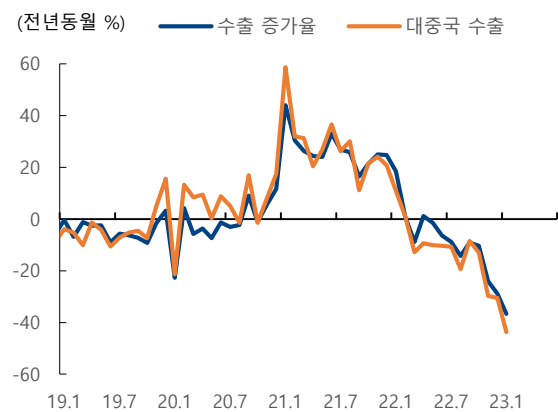


그림3. 재차 불안해진 홍콩 달러와 항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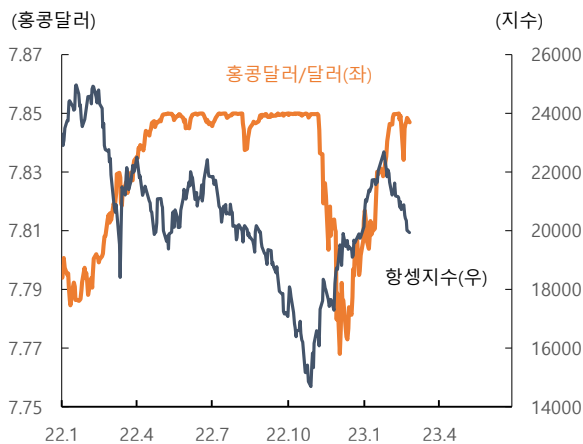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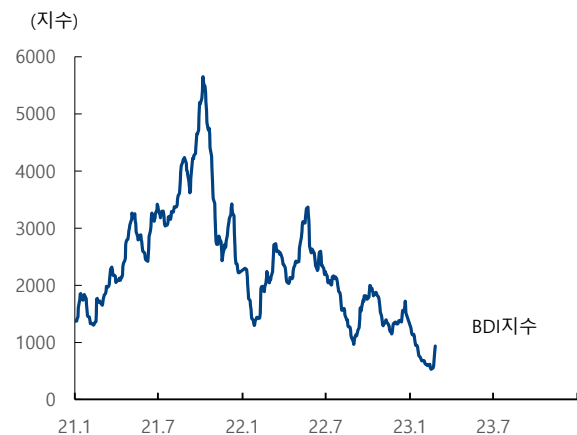


그림4. 반등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BDI 지수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 진정되지 못하는 중국 리오프닝 불안감

- 1월 홍콩 수출, 70년대 최대 하락폭 기록

- 국내 증시를 포함해 국내 금융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미 연준 금리정책과 중국 리오프닝 효과지만 이들 변수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미 연준 금리인상 사이클 불확실성이 재차 증폭된 가운데 기대했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임
-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목하는 홍콩 경기와 금융시장 흐름은 일단 부정적임. 우선, 1월 홍콩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 -36.7% 급감하였고 수입증가율 역시 전년동월 -30.2%의 부진을 기록함. 특히, 1월 홍콩 수출 감소폭은 70년대 최대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됨
- 홍콩 수출 부진의 직접적 원인은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 수출 급감임. 홍콩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는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전년동월 -43.7% 기록한 것은 물론 주요 아시아국가들의 수출증가율도 40~50% 수준의 감소폭을 보임
- 홍콩이 중국보다 먼저 리오프닝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홍콩 금융시장도 다시 불안해지는 형국

- 지난해 11월초부터 강한 반등세를 보이던 홍콩 달러와 항셱지수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음. 홍콩달러의 경우 페그제 밴드 상단인 7.85 수준에 재차 근접하고 있으며 지난해말 강한 반등세를 보였던 항셱지수 역시 상승폭을 상당부분 반납함. 2월 27일 기준 항셱지수는 연초대비 0.8% 상승에 그치고 있음

- 약재가 화재보다 많은 상황

-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분명히 잠재해 있지만 당장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과 더불어 정찰 풍선 사태로 재차 긴장감이 고조된 미-중간 갈등 등은 홍콩을 위시한 중화권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하듯 JP Morgan 은 아시아 신용지수(Credit index)에서 중국 비중을 현 43%에서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3월 초중반이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듯

- 양회에 이어 리오프닝 효과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경제 지표 발표 대기

- 기대했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4일부터 개최되는 양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
- 우선 관심은 23년 GDP 성장률 전망치로 중국 정부가 보수적으로 5% 성장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내외에 강한 성장의지를 밝히기 위해 6% 수준의 예상 밖 성장률 목표치 제시 여부가 관심거리임. 일단 중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광둥, 장쑤성은 5%대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함
- 경기부양책 내용은 물론 빅테크 정책 역시 관심사항임. 올해 중국 경제가 V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 반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강조하는 공동부유 정책과는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아니면 공동부유 정책이 일단 수면 아래에 놓일지도 관심거리임
- 더욱이 이번 전인대를 통해 경제를 총괄하게 되는 리창 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높일 것임. 무엇보다 금융시장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리창 총리체제 출범과 함께 가시화될지도 주목해야할 부문임
- 이 밖에도 3월 1일 2월 중국 제조업 PMI 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1~2월 경제지표 발표가 3월 중순경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도 리오프닝 효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분수령 역할을 할 것임

- 그나마 2 월들어 일간 이동 및 물동량 지표가 반등하고 있고 당사가 중국 경제 정상화와 관련하여 강조한 BDI 지수 역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음은 다행이지만 양회를 기점으로 한 부양정책 기대감 강화와 리오프닝 효과 가시화 여부가 중화권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내 모멘텀 재강화에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함

※ 참고: BDI 지수(발틱운임지수)란 석탄, 철광석, 시멘트, 곡물 등 원자재를 싣고 26 개 주요 해상운송경로를 지나는 선적량 15 천 톤 이상 선박의 화물운임과 용선료 등을 종합해 산정하는 지수로, 배들이 원자재를 '얼마나 많이' 싣고, '얼마나 자주' 돌아다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임(KDI 자료 참조)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류진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